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명 :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일 시 : 2019. 10. 21.(월) 19:20
- 장 소 :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장
- 참석자 : 김용관(위원장), 박은미(위원), 김원중(위원), 이춘태(위원),
조정환(위원), 정진임(위원)
- 배석자 : 정남형(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문규주(구의원), 신봉규(구의원),
송영창(구의원), 홍석중(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안 건 : 2019년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

○ △△△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2019년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입니다. 먼저 간사께서 심사기준과 출장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은평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과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와 동 규칙 별표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2019년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10월 10일 2019년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이어, 10월 17일 최초 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서가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출장지는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이며 출장 인원은 6명입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현지 의회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등의 선진 정책을 비교할 계획이며, 각 시설 방문을 통해 환경, 일자리, 공원, 도시재생 분야 등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원의 출장경비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국외 여비 지급표 상 뉴욕과 워싱턴은 (가) 등급 국가로,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항공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를 산출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출장 의원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아울러,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 △△△ 위원장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서는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장 △△△입니다. 현업으로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저희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며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준비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심사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심사받는 자리입니다. 지난 10일 제출된 1차 계획서에 출장목적 및 세부내용 부분을 보완하여 2차 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였으니, 각 계획서 및 보충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은 여건에서도 미국의 선진 지방 자치 제도와 운영과정, 우수한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정책, 도심지 공원화 성공사례 등 각 의원의 관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의원 스스로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현지 일정을 구체화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수차례 사전 회의를 통해 시설 및 기관의 방문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관한 많은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방문 기간이 그리 길지도 않고 예산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단번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힘들겠지만, 각 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만큼 향후 구정 발전과 관련한 우수 접목 사항들이 도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출된 계획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받았고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항목별로 어디를 방문하시고 방문할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설명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저희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의원들 자비가 지금 책정된 건가요? 299,000원 돼 있는 게, 구의회 부담이 1572만원, 구의원 자비 29만원인데, 그러면 의원들 경비가 다른데 이게 지금 공동으로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따로 전문분야에서 별도로 다른 일정을 잡았나요?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일정은 동일하고, 단지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하여 항공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별로 개별로 항공권을 사전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날짜에 따라 항공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 △△△ 위원 : 2017년에 미국, 캐나다를 다녀오셨는데, 이번 계획에 보면 첼시마켓, 하이라인파크, 국회의사당, 센트럴파크는 2017년에 갔던 곳입니다. 여기를 재방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 의원 : 2017년 9월에 행정복지 소관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문화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방문을 했었고, 지금은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방문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도시재생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곳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첼시마켓이나 이런 곳들은 2017년 보고서에서도 도시재생 사례라고 표현이 되었고 여기도 지금 업무 내용이 도시재생인데 그때 됐던 거로는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 의원 : 그때 2017년도에는 운영하는 점포 수가 29개였습니다. 지금은 40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회사에서 2018년 3월에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회사체계로 운영을 하고, 그전에는 개인적인 운영시스템을 회사체계로 운영하는데 이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SNS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다음에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효과가 그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방문할 생각입니다.

○ △△△ 의원 :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팩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팩트라기보다는 이번 방문하는 목적으로는 경영현대화와 시장운영 현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자 하고, 또 배워오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초선이면서도 저희 지역구 내에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연서시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상도 수상했지만, 현대화라는 개념을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자금적 지원이나 간판사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지, 접목한다면 어떤 형태로 접목을 해야 되는지, 확대해서 논의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첼시마켓 같은 경우에는 황폐되었던 공장부지를 마켓으로 재생시킨 사례인데, 저희는 마켓의 시스템 그 자체에 관점을 두고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점포에 한 개의 아이템, 시스템 운영 자체가

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또 공연 문화도 갖고 있고, 전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 △△△ 위원 : 그렇게 바꾼 게 지금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2017년 이후 다 개선된 사항인 건가요? 첼시마켓이 2017년 이후 2018년 구글에서 인수해서 시스템이 좀 온라인 기반으로 바꿨다 그걸 말씀하셨고, △△△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글이 인수하면서 변화된 내용이어서 그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첼시마켓을 선택하신 건지? 만약에 그런 형태 개념 같은 마켓 운영 개념 같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 설명하시는 포인트가 달라서요.

○ △△△ 재무건설위원장 :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성공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달 전이라도, 그리고 저희가 안 정보를 가지고 그곳이 이 사례로는 괜찮은 곳이다. 그런 사례로 계산을 하고 가는 것이지 그것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 위원 : 재작년에 첼시마켓을 방문했던 분이 △△△ 의원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또 방문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미 그 상임위 안에서 학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아주 선진사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2018년도에 구글이 인수한 이후에 사실 아직 1년 정도가 된 건데, 그 이후에 변화된 포인트 때문에 그런 건 지가 지금 설명이 잘 안 돼서..

○ △△△ 재무건설위원장 :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성공사례를 우리가 좀 알고 싶고, △△△ 의원님은 전에는 행정복지위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관점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시스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과는 지금과 비교를 해서 질의를 주시는 부분은 좀..

○ △△△ 위원 : 계획서에 둘 다 도시재생이라고 명기가 되어있어서 같이 여쭙본 겁니다.

○ △△△ 의원 : 부연 설명을 하자면, 첼시마켓은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시계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비스킷 공장을, 외부 외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안의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사실은 은평구에 어떤 벤치마킹, 전통시장에는 해마다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는 청년 상점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상인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는가? 첼시마켓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첼시마켓은 콘텐츠가 상당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고요, 상인의 미팅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 올 것이냐? 모든 점포가 성공한 점포가 아닐 텐데 과거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점포가 성공했으며 또한 실패한 점포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쌓은 전통시장 내 마켓 안에 있는 환경,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은평구의회에는 초선의원들이 많고 또한 지금 가는 의원님들마다 지역구 전통시장이 있어서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 △△△ 위원 : 첼시마켓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하이라인파크와 국회의사당, 센트럴파크.

○ △△△ 의원 : 그러니깐 지금 하나씩 하려고 하거든요, 첫날에 이뤄지는 첼시마켓 하고요, 그리고나서 하이라인파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 △△△ 위원 : 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걸 질문하라고 하셔서요.

○ △△△ 의원 : 이번에 우리 6명의 의원이 출발합니다. 그중에서 저만 재선이며, 저만 다녀왔고, 5명의 의원은 처음 방문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갔던 거고, 이번에는 도시재생에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갑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라인파크는 1930년에 철도가 지상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 지상 9m 높이로 고가가 만들어졌고 1980년에 폐쇄되었습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방치가 되었고,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고, 범죄도 자주 일어나다 보니 주변의 집값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다, 하이라인 프렌드쉽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으며, 2000년에 뉴욕에 테러 사건이 나면서 블룸버그 시장이 560억이라는 돈을 그곳에 투자하여 하이라인파크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으로 갔을 때는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를 중점으로 봤고, 그것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 도시재생에서 못쓰게 된 것을 다시 쓸 수 있나 하는 것을 중점으로 보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 △△△ 위원장 : 혹시 우문일지도 모르는데 첼시라는 말은 왜 들어간 건가요?

○ △△△ 의원 : 첼시는 영국의 지명입니다. 첼시라는 축구팀도 있고..

○ △△△ 위원장 : 첼시가 영국에서는 부자 동네로 알고 있는데, 왜 첼시라는 명칭이 들어간 건가 해서..

○ △△△ 의원 : 첼시라는 메이저급 축구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영국의 첼시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같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2017년도에 다녀오실 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첼시마켓을 도시재생 사례로 다녀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서를 보면서 도시재생 사례로 이때 다녀오셨구나. 그런데 이번에 또 도시재생 사례로 가시니, 또 의원님들도 바뀌고 했으니깐 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보고서를 보면, 첼시마켓, 하이라인파크를 다녀오셔서 한 장하고요 뒤에 네 줄이 보고서로 나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하 1층에 있는 첼시마켓은 마치 지하쇼핑몰을 연상케 했다. 점심시간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변 직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교통난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하나의 핵심소재가 있으면 사람들을 불러오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가는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첼시마켓은 끝납니다. 사실 보면 보고서가 충분하다고 볼 순 없을 것 같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보면 그냥 여행 다녀와서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하이라인파크 다녀오셔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따뜻한 햇살과 꽃향기 시원한 바람 풀향기가 가득한 벤치에는 아기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 데이트를 나온 연인들이 눈에 띄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시면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보완책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의원 : 부실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실은 재무와 행복이 섞여서 갔습니다. 그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 시각에서 보고서를 썼을 겁니다. 의원들은 가면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저는 시장 활성화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의원들은 환경이나 도시재생 등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에 맞는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에 따라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음번에는 그런 보고서가 절대 나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이것은 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출장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그 이후의 것들이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위 심사할 때도 계속 요청한 것이 출장의 목적이 명확하고, 꼭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 규모에 맞게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것의 위원들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첼시마켓, 하이라인파크 다 필요해서 선정했을 거로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도 보면 출장목적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적을 명확히 계획서에 담아주셔야 심사를 할 수 있고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의원 :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행사를 선택한 것이 아

니고, 6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일정에 맞게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였고, 그로 인해 갔다 온 곳이 중복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 △△△ 위원 : 저는 갔던 데를 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두 번 세 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복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충분히 준비하신 내용이 계획서상에 충분히 담겨있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 의원님이 의원들이 모여서 역할을 나누고 충분히 논의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을 계획서상에서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풀어서 설명하기에는 설명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록을 요약해서 수록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목적이 충분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네, 참고하겠습니다.

○ △△△ 위원 :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은평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런 것은 현황파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답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시급한 것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잃었던 것도 있지만, 주차장 없고 시설 낙후되고 노후돼고, 제일 큰 것은 영세하면서도 관련 종사원들이 고령화되었고, 사실 초점이 불분명해서 △△△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선진국의 사례가 반드시 우리한테 적합한 것이냐, 은평구의 실정에 맞춰야 하지 않냐. 그러면 좀 더 목적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검토해서 그 주안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펴보고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의원 : 은평구에는 재래시장이 1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시장이라고 응암오거리 시장도 있고 연신내도 이렇게 상점가가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에는 증산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현대화를 하는데도 상권이 살지 않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올드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물론 많으신 분들이 경영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근데 첼시마켓에서 느끼는 그것은 중복된 상품이 없습니다. 한가지 상품에 특성화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가지고 상점을 들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공간도 만들고, 시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그림 전시회도 하고요. 우리가 그런 그것

들을 응용한다면 시장이 먼가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첼시마켓을 방문합니다.

○ △△△ 위원 : 이상적인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와 닿지는 않습니다.

○ △△△ 의원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은평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을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인지하고 계시는 대형마트, 주차장 문제, 시설 노후화, 고령화 등은 본 의원도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있어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 논문이나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 가격정책을 표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에 가서 배워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활성화를 위한 작은 단추가 하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선진사례가 두루뭉술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세세하게 살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는 염려 안 하실 정도로 준비하는 의원 모두 다 결과보고를 충실히 하고 모든 것을 자료화하여 공유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점 염려 안 하시고 심사해주셨으면 합니다.

○ △△△ 의원 : 첼시마켓이 연간 6백만 명이 다녀갑니다. 왜 다녀갈까 하는 것을 어떤 시장에 대한 시스템들을 보고 응용할 게 있으면 현 은평구에도 접목을 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보고 배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 △△△ 의원 : 다른 관점에서 하나 더 참고를 드리자면, 의원의 본 목적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점에 있어서 다른 관점에서 선진화, 혹은 어떻게 접목이 될지는 그 사례들을 보고 왔을 때 지금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각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과연 효율성 있느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 보충설명 4페이지에 보면 목적 및 기대효과 보면 제가 모르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보면 향후 은평구가 잘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해 프렌즈 오브 더 하이라인 이런 단체가 있다는데 조금 설명해주세요.

○ △△△ 의원 : 하이라인 프렌즈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이라인파크를 관리하는 단

체 이름이 하이라인 프렌즈라고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많게는 38명의 이사로 형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 의원 :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첼시 마켓에서 상인회를 만나고 하이라인파크에서 관리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관리해오는 과정, 2년 안에 그 시설이 유지 보수 후 유지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호응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지 예상질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 대충 첼시마켓과 하이라인 파크 질의는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어팩스시티 의회에 대해 질문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하고. 저는 페어팩스시 의회에 대해 여쭙보고 싶은 게 보충자료 5페이지를 보면 목적 및 기대에 우리 구 폐기물 수집과정 및 접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센터뿐만 아니라 은평구에 재활용할 걸 따로 수거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잔존물이 잘 안 나오게 분리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 주택, 상가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잔존물이 많이 붙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요. 만약에 페어팩스시티에 가시면 이 사람들이 수거할 때, 재활용, 일반 쓰레기는 태우면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활용 아닙니까? 자원 재활용은 해야 하는 거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페어팩스 시티에 가면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원 : 페어팩스시티에 오전에 방문해서 소피 림이라고 한국 이름 임소정이라는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 분과 메일을 먼저 주고받았고, 간담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재활용센터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스템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를 모으는 통이 견고하고 색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투에 넣어 집합해서 차가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차이를 볼 것이며, 재활용은 어떻게 수거를 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페트병이나 캔, 유리병을 집에서부터 정확히 분리를 정확히 해주는데, 수거회사는 수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착이 되었는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업지역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그쪽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의원들이 은평구의 재활용문제가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방문할 계획입니다.

○ △△△ 위원장 : 가시게 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 △△△ 의원 : 은평구의회에서 여수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수시의회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예산 차이도 크지만, 본회의장의 수준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방송을 하고 안 하고의 부분 등의 차이가 상당히 큼니다. 저희도 예산을 파악을 해봤지만 어마어마한 예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페어팩스시티 같은 경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의회방송을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의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자원순환도 있지만, 선진의회 견학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 위원님들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업무 내용에 선진 지방자치제도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그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항상 계획서의 첫 번째 목적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배우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접목하겠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어팩스 시는 어떤 제도가 선진제도라고 보고 계신가요?

○ △△△ 의원 : 미국의 기초의원, 우리같이 구의원 시의원들과 시스템이 다릅니다. 거기는 2년제입니다. 페어팩스시는 6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6명의 의원은 엄격하게 공무원과 시장을 견제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쪽과 연락해본 결과 저희는 1년에 회기가 100일 정도 되지만 그곳은 200일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많냐 작냐 그건 둘째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정확하게 저희는 아직도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많이 쓰는데, 디지털화된 회의 운영방식 등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페어팩스 시티의 매력이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상류층이 사는 지역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컨퍼를 하게 된 것이 어떤 이유였느냐면 대체 은평구는 어떤 곳이길래 이곳에 방문을 원하느냐 해서 우리도 똑같이 북한산 밑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베드타운이 형성되어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없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다 했더니 그럼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다 하며 방문을 하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교육과 문화적인 것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연천군 의회에서 페어팩스를 다녀와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이곳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라고 되어있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그 부분은 관점입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를 보면 의회 방송시스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그 의회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방송의회 시스템, 저희가 음향시설, 부대시설들이 많이 낙후되어 그런 부분과 또 그곳의 주민참여제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폐기물도 저희가 중간정류장 제도가 있는데 내부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자기 집 앞에 중간정거장을 놔두다 보니 쓰레기장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워낙 들어오다 보니 치워지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얘기해서 지금 있는 보기에 안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색깔별로 이쁜, 또 튼튼한 통, 위치도 늘려서 효과적으로 보고 올 기회를 갖고자 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 △△△ 의원 : 그리고 △△△ 위원님께서 어떤 선진제도를 배워올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페어팩스시는 △△△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달 2회씩 회의를 하고 시민이 온라인 방송을 보면서 참여를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도 일정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회신이 왔다는 △△△ 의원님 말씀에 도대체 방송을 보고 어떻게 참여를 한다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가서 물어볼 상황이 있다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장기 발전제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전부 다 기관대립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 내에서 어떤 제도를 쓸 것인가 결정하도록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페어팩스시는 기관통합형으로써, 그래서 현재와 같은 기관대립형이 아니라 보다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다면 차후에 우리 은평구도 변형된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의회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점으로는 대부분 직장인은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 수가 없지만, 저녁 7시에 하기에 시의회 방청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민참여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민들이 은평구 의회에서 회의할 때 방청은 할 수 있지만, 발언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나와서 발언신청을 해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일 년 동안 회의목록이 자세히 규정되어있습니다. 가령 몇 월달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겠다 하는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포하고, 이 제안된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위원 : 의회 방송시스템 견학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생방송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사례나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이 생방송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보신다든가 하는 것은 하고 계시나요? 해외사례도 좋지만, 국내 가까운 곳의 사례를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 △△△ 의원 : 오늘도 본회의 하고 나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되도록 방송시스템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자고 의원님들과 몇 개월 전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마치고 나오면서도 보셨지만 제가 5분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빔프로젝터를 사용

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보다 인원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자로 방송으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우리의 관점에서 보고 유념해서 저희한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관점을 갖고자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국내 강동구 의회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서울시, 충북 충주시, 지방의회이지만 상당히 방송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모니터링 하고 있고 의원들이 현재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도 공감하고, 요즘 보편화 되어있는 시각적 보장권을 확보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찰하고 반영하겠습니다.

○ △△△ 위원장 : 보충자료 6페이지 밑에 목적 및 기대효과를 보면 환경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고 해당 기관 담당자를 면담하여 미세먼지 절감 대책에 대해 교류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미국에서도 미세먼지가 심각한가요?

○ △△△ 의원 : 미국 환경청은 6개 분야를 관리합니다. 물, 소음, 대기, 먼지, 폐기물, 유해물질, 방사선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목요일 14일 날 국제 방문객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미 환경청의 10개 지사가 있는데 워싱턴에 있는 본사에 저희가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가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은평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화두가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들을 보고, 수질에 관한 프로그램도 신청했는데 불광천의 수질이 많이 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저희가 아직 핵폐기물, 소음 관계는 외적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으로 서류를 넣었고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 △△△ 위원장 : 수질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파트에 가면 하수가 나가는 관과 우수가 나가는 관이 분리되어있습니다. 오수가 나가는 건 결국 빗물이 나가는 것이고, 이게 개천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도로가 오염되기 전에는 크게 오염될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식당 같은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우수관에 그냥 자기들 설거지하고 버립니다. 저는 선진국에 가면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우수관이 도로 옆에 빗물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너무 지저분해서 하수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 수질 관리, 불광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일반가정에서 우수관 관로에 오물을 버리지 않는지..

○ △△△ 의원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로서 어느 지역이나 보고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에 다녀온다고

해서 내년에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해서 은평구의 관로가 모두 개선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것이 환경보호국에 가서 환경대책, 은평구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은평구에 타당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환경보호국은 6가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 오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지금 폭염을 또 재난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제한된 과목에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질문은 은평구 현실에 맞는 질문들,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인지를 목적으로 간다는 부분 설명해 드립니다.

○ △△△ 위원장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서 분명히 도로가에 빗물 들어가는 곳이 어떻게 관리 될 수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 △△△ 의원 : 꼭 사진 찍어서 결과보고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원 : 우리 △△△ 의원 말씀에 동감하는 것은 가서 보고 왔다고 해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못되어있는 게 우리는 우수관과 하수관이 비가 많이 오면 섞여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불광천이 범벅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공사를 해서 분리를 시켜야 하는데 그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서울시 관계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것은 시간이 좀 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장 : 저는 그냥 소박한 주민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 △△△ 의원 : 위원장님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도로환경의 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빗물과 오수를 구분하는 규모를 봤을 때 우리는 굴곡이 많고 좁으며 도로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굴곡이 많다 보니 인입관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땅의 규모가 넓다보니 도로 폭도 넓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모이는 라인과 오수가 모이는 라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광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가 오면 우수와 오수가 혼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모이는 구조 크기 자체가 크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지형적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가는 지 논의를 통해 많이 듣고 오겠습니다.

○ △△△ 위원장 :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질문보다는 제안사항인데, △△△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페어팩스가 회의나 이런 것들 목록을 잘 공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전 주에서 회의공개법이란 걸 시행하고 있고, 버지니아주에서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페어팩스시가 그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회의 공개 대상에 방청 등을 열어 놓는 건데 그 안에 전자회의와 이메일 회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공개되도록 하고 있는데 버지니아주가 전체 52개 주에서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인프라를 특히 온라인 회의체계를 잘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왕에 EPA를 다녀오시니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 알 권리와 관련해서, 미국의 지역사회 알 권리 법도 만들어져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되고 있는데 은평구가 유해 화학 물질 사업장이 아주 많진 않지만, 환경부가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8개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많은 지역은 아예 화학 물질 정보 공개 관련 조례 등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주민참여 거버넌스체계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고 오시는 게 실질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참여형 프로세스를 만들지 좀 더 내실화가 될 것 같아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 △△△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 상에 인터뷰 요청 사항들이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에 관심도 뒷부분에 있다 보니 아직 전달이 안된 부분입니다. 의견 주신 부분은 가기 전에 내부에서도 이메일로 요청해서 가능한지, 아시다시피 사전에 요청이 되어있는 상태여야지 저희한테도 피드백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렇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위원님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5번, 6번 진행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까지 같은 내용 같은데 뉴욕경제개발공사 방문 건, 브루클린 기업 방문 건, 뉴욕 센트럴파크 방문 건입니다.

○ △△△ 의원 : 묶여있는 건 5번, 6번이 묶여있고요, 7번은 따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 5번, 6번에서 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원 : 사전설명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 뉴욕경제개발공사를 설명해주세요.

○ △△△ 의원 : 뉴욕경제개발공사는 크게 보시면 도시 부동산 정책과 그 부동산 정

책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쪽 기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은평구 재무건설위원회 의원님들과 같이 은평구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정 정책에도 창업과 관련된 기본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하는 기본조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같이하면서, 뉴욕경제개발공사 슬로건이 ‘더 빌딩 스트롱 네이버 후드 그레이팅 굿 잡’ 이라고 저희 은평구가 현재 추구하는 목적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단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타이틀을 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자리라는 것이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결코 창업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컨셉을 가지고 뉴욕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및 창업지원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추진하고 있는 은평구 창업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저희 은평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그 모티브를 찾고자 뉴욕경제개발공사방문을 희망했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관련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경제개발공사에서 보시면, 수색재정비촉진 사업 등 합리적 도시개발방안 모색이라고 목적에 붙여넣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불광동이 도시재생과 뉴딜정책이 같이 서울시 사업과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벽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재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같이 접목하고 있는지 두 가지 팩트 다 포함된 요소여서 이 기관 방문을 기획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원 :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욕경제개발공사와 관련해서는 은평구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역촌동 주민센터가 민간자본 투자가 될 것인가 LH공사와 관련해서 움직일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지역구인 오덕수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공사를 방문했을 때, 민간투자, LH와 병행투자를 상당히 고민하는 것으로 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 △△△ 위원 : 뉴욕 경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목적에 열거가 되어있는데 우리 구의 현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청년 새싹점포라든가 다양한 창업정책이 우리구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의 현황과 기본적인 평가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런 점이 우리는 잘되고 있고 이런 점이 부족한데 하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행되고 있다고 마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청년 새싹점포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책을 펴도 그만큼의 효과를 많이 못 내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의원 : 서울시 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창업지원센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단

순한 그런 목적성보다는 은평형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이고 싶고, 그것을 지금 청년 새싹점포나 서울창업아카데미 서울 불광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자금적 투입 외에는 저희 은평구청에서 직접 아이디어 개발이나 기술개발, 다른 특화된 지원 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창업지원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사전에 은평구 창업생태계 현상을 용역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그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접목을 해볼 수 있는 게 뉴욕 경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청년들이 어떻게 증강현실이나, 사이버보안, 생명 공학에 지역경제와 같이 접목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이 접목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교육을 하고 단순히 금융적 지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교육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이 실질적으로 베드타운으로 역할은 하고 있지만, 굴뚝 없는 공장으로 충분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미리 파악하고자 창업지원 기본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응용을 앞으로 해갈 것인가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키우고자 지금 뉴욕경제개발공사를 방문을 목적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 △△△ 위원장 :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 특색이 있습니다. 제조공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시 창업카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은평구는 다른 구에 갖고 있지 않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관광자원이 되게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관광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무시 못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엄청나게 잘살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견학하러 가시게 되면 관련 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공원과 관광과 관련하여 오늘 5분 발언을 했는데, 본 의원이 저희는 황금 그린벨트라고 표현했는데, 수색산-봉산-앵봉산-이말산-북한산-백련산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하고, 그리고 한강에서 응암오거리, 응암역, 연신내까지 이어지는 먹거리 상권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관광뿐만 아니라 공원 자체도 은평구에 워낙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공원을 가는데 벤치 색이 어떻게 되어있고, 위치는 어떤지 하는 것도 관심도가 높아서 세심하게 다 체크를 해서 올 생각입니다.

○ △△△ 위원 :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외국을 가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시장상권 얘기하셨는데, 서울시에도 이렇게 성공한 곳이 굉장히 많고, 지방, 철도를 이용한 것도 많습니다. 그걸 먼저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국내 비교 시찰이 있고, 국외 시찰이 있습니다. 국내비교 시찰에서는 전통시장을 굉장히 많이 방문했습니다.

○ △△△ 위원 : 그럼 아까 남산부터 연신내, 북한산의 황금 벨트에 대한 것이 20년 전에도 나온 것 아닌가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호텔을 짓자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똑같이 하니 제가 그것을 이번에 다녀와서 과연 이것을 은평구에 그럼 10년, 20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갔는데 그 점을 접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염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 심사위원 자체도 현재 바뀌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시면 7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충자료 9페이지에 보면 의원 조례 발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목적인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 장애인 인구가 은평구가 양쪽 다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행권을 봤을 때 실제로 데크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거리를 가면서 북한산, 불광천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인도에는 2M를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시설을 보면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하면 1.5M를 뚫어서 보행권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해서 보행권을 좀 확보를 하자 하는 차원인데 이게 시에 상위법으로 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을 바꿀 순 없고, 그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행권을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도 얘기해서 상위법이라도 고쳐서 넓게 할 수 있는 또 현재 범위가 안되는 부분들은 넓히는 부분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 △△△ 위원장 : 추가 질문해주세요.

○ △△△ 위원 : 센트럴파크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나요? 규모 면에서 은평구의 공

원 현황이나 이런 곳이란 비교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아무리 큰 공원이라도 압축시키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 △△△ 위원 : 대충은 비슷한 게 뭔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규모 면에서도 비교하기 어려운 센트럴파크에 가서 공원 관리를 보다가 갑자기 보행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스토리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아까 북한산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북한산도 데크길이라던지 공원을 가보면 길 자체 내에 가운데에 나무들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와이나무 브이나무 부여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공원 자체 내에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도 될 수 있고, 보행환경이라고 하죠. 보행환경이라던지 하는 부분들을 접목시키다 보니 표현을 이렇게 써서 나온 것 같습니다.

○ △△△ 의원 : 센트럴파크라는 공원이 형성된 것은 뉴욕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질 때 어느 시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1890년대에 그 부분을 공원으로 먼저 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일부가 되었는데 보행권과의 얘기가 왜 되냐면, 거기에는 언덕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숲도 있고 호수도 있고, 냇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들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 위원장은 불광천 둘레길 걷는 길에 보행로를 만들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불광천을 센트럴파크에서 어떻게 응용할까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뜻에서 보행권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 △△△ 의원 : 최근에 은평구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기부채납으로 공원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하냐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네 몇 개, 시소 몇 개를 만들어놓은 것이 공원인 것인가? 서울시 도시계획본부 단위에서는 공원 용지, 오픈스페이스, 녹지 축에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센트럴파크에 가서 그 축소판을 은평구에 가져다 놓자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사는 우리나라에 맞는 가지치기를 안 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니면 나무부터든 벤치 위치부터는 하나씩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불광천에 보면 보행권과 자전거도로의 배치 부분이든가 은평구의 고민할 내용이 많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위원장 : 불광천도 그렇지만 은평뉴타운에 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곧 지방

하천으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고, 인도만 있는데 잘못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개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작은 개는 모르지만 큰 개는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작은 도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벤치마킹이 안 됩니까?

○ △△△ 의원 :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보행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분명히 어떤 안이 나온 게 보행권이 정답이라고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불광천에 자전거와 걷는 도로를 분리를 하자, 보행권을 확보해주고, 자전거는 차니 차도 위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차도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애완권을 데리고 나오는 주민들의 보행권도,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결부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센트럴파크는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이 되면서 하나의 룰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뉴욕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걷고 보고하는 거리가 모두 보행권과 연결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리의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스케치하고 눈으로 담아오고 몸소 체험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장 : 보행권이란 말은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구 밀집 지역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 있는 불광천과 은평뉴타운에서 창릉천까지 가는 개천 두 개가 지방하천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놓은 보도가 제 생각에는 도보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킥보드가 다닙니다. 그것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쳐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보다는 뉴욕이 좀 더 그런 것들이 앞서갔을 겁니다. 그러면 뉴욕시에 가서 킥보드 문제, 자전거, 인도 문제, 반려견 같은 문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그 센트럴파크에서 주로 간담회가 주목적인가요?

○ △△△ 의원 : 일정상 보시면 15시 50분에 JFK공항을 출발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12시에서 1시 전에는 저희가 도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으로 가는 거, 짧은시간이지만 한곳이라도 더 보고 오자 하는 내용이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뉴욕 센트럴파크와 관련해서 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보행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제가 아니고, 센트럴파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심거리인 공원 내에서의 보행환경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직접적으로 조깅을 한다던지 이런 부

분들에 대해 질의를 좀 하고 환경을 한번 더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닌데 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참여프로그램비가 좀 있다보니 그 부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의가 조금 남아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센트럴파크를 가는 이유는 공원 내에서 어떻게 보행환경이 보장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가꾸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디에 접목을 하려고 하는지, 왜냐면 불광천이나, 불광천 내에서도 집중적으로, 서대문구와 은평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다 보니 복합적으로 접목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접목이 되고 있으니 그곳에서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도 하고 직접 눈으로 경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의원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일정을 잡을 때 센트럴파크를 둘째 날 하이라인파크에 잡으려고 했는데 관리 위원회 센트럴파크 컨서번시에서 시간이 안 돼서 하이라인파크로 바꾼 것이고,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그래도 3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12시까지 공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센트럴파크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걸어서 가는 방법,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원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탈 것이고, 걷고 싶은 분은 걸어서 그 분위기를 봐서 저희가 뭔가를 배우고 오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 △△△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늦어도 12시, 1시까지는 공항에 도착을 해야 하고 센트럴파크에서 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빠듯하게 잡아도 한 시간 반이 걸리는데 간담회도 하시고, 왜냐면 간담회가 포인트인데, 말씀하신 것은 나무는 어떤 수종으로 심고, 벤치는 어떻게 놓여있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간담회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센트럴파크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침 7시부터 투어 다니시면서 간담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시간 안에 가능하겠냐는 현실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 의원 : 말씀드린 대로 시작시각과 원래 일정상 평일에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분명한 것은 기준시간은 12시 이전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JFK까지 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 시간이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가 제일 조깅하고 이용하는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시를 전후해서 이 관리위원회와 만나기 전에 저희끼리 먼저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궁금했던 상황에 따라 보행 관련 한 것만 집중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넓은 공원에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 볼 수 없다고 해서 오전 시간을 흐지부지 보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아침 일찍 나가 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깐

어차피 돌아오는 날이기도 해서 일찍 일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전체 이동은 어떻게 하세요?

○ △△△ 의원 : 차를 한 대 빌렸습니다. 충분하게 15인승 한대를 빌려서 그걸로 일정을 다 소화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어느 나라를 갈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가본 경험이 있는 나라가 저희끼리 목표를 정하고 볼 것들을 정하다 보니, 한 번이라도 가본 나라가 쉽지 않나,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솔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정한 것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선배의원으로써, 제가 다섯 분의 초선의원들을 인솔해서 전체적인 기획 목표를 세우고 짜는것에 같이 의논하면서 한곳 한곳 선정을 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정의 목적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비행기 편을 북경 통해서 가는 게 비용 절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 △△△ 의원 : 네. 뉴욕까지 56만 원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한번 거쳐서 경유해서 가는 겁니다.

○ △△△ 위원 : 북경에서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일정이 그러면 거의 항공쪽에서..

○ △△△ 의원 : 뉴욕에서 북경을 가면 저녁 6시 55분에 도착합니다. 짐은 어차피 내일 그 비행기가 아침에 출발하니깐 수속하고 나가면 저녁 8시 정도 될 것이고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국제항공이지만 56만 원에 비행기를 주면서 숙소까지 제공하니 자고 아침에 오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 △△△ 의원 :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경유하는 것입니다.

○ △△△ 의원 :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120만 원 이상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비용으로는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 위원 : 행정복지위원회는 출장경비에서 항공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이외에 편성하는 게 안된다고 했는데 재무는 어떻게 준비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뵈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무위원회 계획서를 읽어보고 당황했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여비에서 준비금은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 명목이 비자, 보험료 명목으로 4만 5천원 정도입니다. 극히 소소한 금액이라

그쪽에서는 일비, 식비, 숙박비를 쓰더라도 예산을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포함을 안 한 것이고, 예산 항목에서는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 그쪽에서는 무시를 한 것이고 우리는 책정을 한 것입니다.

○ △△△ 위원 : 그럼 여비에서 쓸 수 있는 게 준비금 말고 또 있나요?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 이렇게만 있습니다.

○ △△△ 위원 : 이렇게만 있는 건가요?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아까 말씀하신 통역비, 플래카드 제작비는 여비에서 안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별도로 항목을 빼서 사용해야 합니다.

○ △△△ 위원 :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방문 국가 기관의 섭외가 완료됐는지 완료됐으면 그쪽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자 개인별 업무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의원 : 저는 뉴욕경제개발공사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첼시마켓도 저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업무 분담표 내에서 보시면 각각의 도시공원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 위원님이 주된 인터뷰자가 될 것이고, 환경 보호 재활용 관련 부분에서는 강용운 의원님, 뉴욕 경제개발공사에 있어서는 △△△ 의원님, 오덕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첼시마켓부분이 접목이 될 것이고, △△△ 의원님께서도 아무래도 페어팩스시티 가는 경우는 재무나 행정 막론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라 주된 인터뷰는 △△△ 의원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1,2,3,4,5,6,7로 넘어오는 순서가 이 순서 내에서 하나씩 각 의원이 주된 인터뷰자로 활약을 하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 위원 : 그런 내용이 계획서상에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시는 직원분은 몇 분 계시나요?

○ △△△ 재무건설위원장 : 두 분입니다.

○ △△△ 위원 : 서대문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주무관이 가는지, 업무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원래 심사 대상이 의원입니다. 대상이 구의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음에는 출장 공무원을 같이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원 : 타구의 출장계획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출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지 담당자의 성함 이메일 다 있으니 원하시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저희도 심사 오기 전에 다른 구 계획서를 유심히 봤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출장 준비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계획서상에 담아주셨으면, 심의하실 때도 이런 과정에 따라 이런 목적지가 설정됐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어있으니깐 궁금할 수밖에 없고, 질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 계획서상에 다른 자치구들이 잘한 점을 참고하셔서 보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알겠습니다. 업무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첨언을 하자면, 구의원들이 역량이나 역할이 지역이라던지 위원회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업무분담에서 약간 섞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의원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이 의정활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관심 분야에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들으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파서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위원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 재무건설위원장 : 그 부분은 확인했고 이상이 없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질병관리 본부에서 감염병 현황자료를 첨부했습니다.

○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통역은 내부적으로 해결하시나요?

○ △△△ 의원 : 저희는 영어를 좀 할 줄 압니다. 저는 미국에 아이도 살고 있고, 미

국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 의원과, △△△ 의원도,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와서 문제가 없습니다.

○ △△△ 위원 : 그럼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나요?

○ △△△ 의원 :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 △△△ 위원장 :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심사의견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심사의견서 수합, 위원장에게 제출)

○ △△△ 위원장 :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 △△△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건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행정복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조례라든가 제도를 고칠 게 있으시면 고치시고, 예산도 미리 책정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출장을 가시면 리포트 용지로 몇 장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시는 건데 좀 더 세밀하게 지금보다는, 우리 목적인 바는 무엇이었고, 내가 이 기관을 왜 방문했었고, 방문 당시 있었던 일, 성과가 무엇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겠고, 각 방문 기관마다 목적과 누군가를 만나 일어났던 일, 성과, 앞으로 우리 은평구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세분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고서 작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 △△△ 위원장 : 네, 보고서 작성을 더욱 충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획서가 저희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보고서로 대체할 부분도 있긴 있으니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건의하실 것 해주십시오.

○ △△△ 위원 : 정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따로 질문은 안 드렸지만, 행복위 하고 중간에 △△△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라 따로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 그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 와 닿지 않습니다. 은평구의회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민간에서 추천제로 한 것처럼 저는 그런 면의 진일보도 분명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활동에 관한 결과가 그것에 대한 감상과 인사이트를 문서로 정리하는 내용도 분명 있겠지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투명성과 신뢰성은 증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증빙이 다 되지 않는 형태가 지금 구조라고 하고 그 구조 안에서 다들 설계를 하신겁니다. 그 상태로는 이후에 어떤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국외심사위원들이 그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천을 해서 선발이 되어 활동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위원이 들러리밖에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자괴감이 들고,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일비, 식비, 숙박비가 있는데 현지에서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을 갔다고 했을 때, 일비라는 것은 현지 교통비입니다. 식비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숙박비는 호텔을 가는 건데, 일비라고 했을 때 버스를 탔을 때나 택시를 탔을 때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식비도 아침, 점심을 환율을 계산해서 나중에 정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기준선을 정한 이유는 일정한 기준선 이하 금액이면 현지에서 공무국외 출장할 때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고 인정해준 금액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증빙하는 것은 행정비용이 오히려 많이 든다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금액이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일비, 식비, 숙박비를 일일이 영수증 첨부을 하라고 하면 해당 공무원은 다른 일 제쳐놓고 이것만 해도, 또 엄격히 얘기하면 일비 범위에서 써야 하지 않습니까? 식비도 81달러 미만으로 써야 한다면 식당갈 때 얼마지, 팁은 얼마를 줘야 하는지, 환율을 얼마를 계산해야 하는지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준금을 정해놓고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은평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공무원에게 모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비유나 사례로 얘기하신다면 예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외국에 갔었을 때 숙박비 문제가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숙박비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기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다가 규정이 맞는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투명성문제라든가, 주민들이 기여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 어쨌든 저희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투명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 투명성을 더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의견을 한번 검토주기기 바랍니다.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금액 하한선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금액을 초과해서 쓰게 되면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선의 85% 미만을 사용한다면 정부에서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숙박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드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85%밖에 안 쓴다면 정산을 하지 말라 하는 취지가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바처럼 정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아서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 위원 : 저희가 얘기할 때 기준금 초과 안 초과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처음에 85%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미리 책정이 되고 나서 심의를 하면 이게 심의의 의미가 없습니다.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민들이 볼 때 투명성 아닙니까? 다른 목적도 중요한데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큰 부분입니다. 근데 소소하고 비효율적이다. 이거는 절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신 아주 소소한 교통비 등을 말씀드리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미리 계획서상에도 큰 틀이 있고. 사실은 지금 여행사와 관련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분이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야겠죠. 조금 불필요한 시간 외,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만, 이 일뿐만이 아니고 더 작은 일도 공적인 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세부적으로 계획서에도 밝히고, 다녀와서도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출장경비를 보시면 만약에 뉴욕을 가게 된다면 현지에서 사실 전용 버스도 빌려야 합니다. 전용 버스는 경비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분야는 통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센트럴파크에서 자전거를 사용한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비를 어디서 마련합니까? 결국은 행안부에서 기준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쓰라고 허용을 해준 것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갔을 때 보면 전용 버스를 빌려야 하고, 통역도 해야 하고, 입장료도 내야 하고, 프로그램비도 내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가려면 어느 정도 기부금을 내야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은 전부 첨부이 안 되어있는데, 그런 예산을 첨부를 해주시면서 정산을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경비를 일비 식비 숙박비로 쪼개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 위원 : 지금 심사에서는 지금 이번에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는 그것이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저희가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예산이 쉽게 말해 출장경비가 500만 원 정도 된다면 통역비도 여기에 집어넣고, 일비도 하루에 20달러라고 하면 30달러를 쓰면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도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평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에게 이만한 예산을 출장에 쓰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 △△△ 위원 : 지금 보시면 85%를 계속 맞추려다 보니 말이 계속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역비라든가, 일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하면 80%로 안 하고 100% 해서 한다면 이 범위내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산을 해야 해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정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같이 전용 버스도 사용해야 합니다. 6박 8일 동안 저희들이 각자 택시를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면적으로 있는 겁니다.

○ △△△ 위원 : 아까 회의하면서 얘기 거의 마무리했는데 사실 마지막에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정산하고 뭐 하는 게 힘들어서 행정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 심사위원회 왜 하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지 않습니까? 시민의 알 권리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려운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그래도 이해를 했으니 다음에라도 뭘 마련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행정 낭비라고 말씀하시면은 지금 이자리에 있는 것도 저는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좀 과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 재무건설위원장 : 지적하신 사항 잘 말씀 들었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의원 :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행을

갔다 오면 정산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행복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 모든 걸 주었고, 그럼 여행사에서 영수증을 끊어주면 정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소소한 것까지 다 챙겨야 하다 보니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짤기 때문에 더 추가됐으면 됐지 여기서 돈이 남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충분하게 그 말씀하신 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답은 사실상 그런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고정된 금액이고, 여기서 더 항목을 더 집어 넣을 수도 없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기가 있고, 임기 내에 개선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일부 개선된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수에는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답을 주시면 되지 뭐 지금 규정이 80센트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그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이 심사하신다면 거기서 몇 일 분을 반영을 했느냐 하는 것은 심사하실 때 심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쉽게 얘기하면 12시간 이상씩 비행기를 타고 가면 숙박비를 지불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식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기준금액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심사과정에서 예산 부분 중 그런 부분은 심사하실 수 있습니다.

○ △△△ 위원장 : 위원님들 추가로 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희들이 의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복지위원회와 같이 심사계획서에 방문 장소 있지 않습니까? 방문 기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왜 이걸 요구하냐면 위원님들이 어느 기관을 방문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명기해주시고, 방문 기관의 담당자하고 만약에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처까지 해서 수정하는 거로 해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섯 분이 계실 때는 수정안건으로 의결하기로 했는데, 혹시 거수할까요? 아니면 의견 봤던 대로 통과를 할까요?

(의견 일치 되었다는 위원 있음)

그럼 이렇게 수정의결로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무건설위원회 공무출장계획은 수정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은 심사의결서 서명을 받아주시기 바

랍니다. 이것으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